



잠깐!

아프리카돼지열병의

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, 육류·햄·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해외에서 가져오지 말고, 휴대하여 입국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매우 높음

▶ 오염된 육류는 매우 위험한 감염원

- 냉장육 및 냉동육에서 수개월~수년간 생존 가능
- 가열건조된 식육산물에서 수주일~수개월 생존 가능
- 훈제, 공기건조된 식육내 바이러스 생존 가능

휴대한 동물·축산물을
신고하지 않을 경우
최고 500만원의
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 방지



해외여행 시 주의사항

-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발생지역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, 출·입국시 공항·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,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☎1588-9060 / 4060

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



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

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?

-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높은 전염병(치사율 최대 100%)
-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도 없음

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



중국, 러시아 등 발생국
여행 시 가축 접촉금지



육류, 햄, 소시지 등
돼지 산물의 국내 반입금지

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☎1588-9060 / 4060

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



돼지들이 한데 겹쳐있음



비강의 출혈



귀에 점상출혈소견

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임상증상

- 발열증상 이후 높은 폐사율로 이어짐
- 돼지들이 한데 겹쳐있음
- 급사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
- 호흡곤란, 침울증상, 식욕 절제
- 복부와 피부 말단 부위에 총혈소견

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

돼지열병과 증상이 매우 유사하며,
증상이 보이면 즉각 신고

* 출처 : www.cfsph.iastate.edu, Center for Food Security and Public Health, Iowa State University,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

** 본 원고에 게재된 사진은 원저자의 허락을 받고 게재하는 것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

사지말단부 및 복부의 발적 및 총혈



피부 총출혈 및 괴사소견



혈액성 점액성 거품이 있는 비강의 분비물

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☎1588-9060 / 4060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